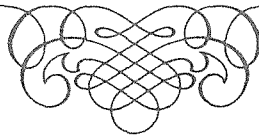


상공자원부조직개편



상공자원부는 지난 2월 14일 무역조사실(1급) 및 자원개발국을 폐지하고 산업기술국, 통상심의관을 신설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1실(1급) 1국(국장급) 5과(과장급)가 폐지돼 본부의 경우 기존 17국81과에서 16국76과로 줄고 무역위원회도 1실1관4과에서 1관4과로 조정된다.

부문별 개편내용은 통상부문을 현재의 3국에서 통상정책국과 통상진흥국의 2국으로 통합하는 것을 비롯, ▲공업부문에선 기초공업국을 기계공업국과 섬유공업국에 분산 통합시키고, ▲자원에너지부문 4국도 자원정책국, 석유가스국, 전력석탄국등 3국으로 정비했다.

자원·에너지부문의 개편내용을 보면 ▲현행 4개국을 자원정책국·석유가스국, 전력석탄국으로 개편하고, ▲행정수요가 줄어든 자원개발국의 석탄관련업무는 전력석탄국에 흡수통합하고 자원개발업무와 에너지정책국을 통합하여 자원정책국으로 바꾸고, ▲전력담당부서를 축소(6개과→4개과)하고, 석유정책과와 원유과, 해외자원과와 해외자원과를 통합했다.

◆ 상공자원부 조직개편

